

發明教室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噴水탁자 시리즈 發明人

코팩트企業 羅宗煥 사장



〈羅宗煥 사장〉

국내 최초로 室内 噴水탁자를 發明하여 國內 市場에 선보인바 있는 코팩트企業 羅宗煥사장은 噴水탁자 시리즈를 계속 開發하던중 최근 噴水스탠드를 發明, 우리나라 噴水탁자 시리즈 發明의 獨步的 發明人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發明과 함께 살아온 세월만도 어느덧 13년에 이르는 그는 요즘 들어서서 國內 市販에 海外 바이어들의 商談까지 밀려들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물의 歷史는 바로 人間의 歷史이지요. 또 분수대는 물의 藝術品이지요.』

물과 분수대에 대한 知識 또한 學者를 방불케 하고 있다.

羅사장이 發明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83年. 프랑스에 다녀온 친구가 가져다 준 室内분수대 카다락을 보고 난 후부터였다. 친구의 說明에 따르면 유럽 및 歐美에서는 80代부터 室内 분수대가 가정의 필수품화 되다시피 붐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 이같은 사실에 접한 羅사장은 85年 11月 室内분수대 開發에 착수했다. 그러나 순수 法學士 출신인 그에게 機械的인 室内분수대의 發明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관계 特許資料 및 市場調査를 하는 데만도 1年 6個月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했다.

試作品이 誕生한 것은 87年 2月. 이 試作品을 만드는데만도 7천만원의 費用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어렵게 만든 試作品은 上向式이어서 실패하고, 또다시 下向式으로 開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문제는 또 있었다. 下向式으로 完製品을 만들고 보니 이번에는

模倣이 판을 쳤다. 이에 따라 羅사장은 工業所有權으로 무장하기로 하고 모두 22件의 工業所有權을 出願했다. 羅사장의 噴水탁자가 世人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月15日 本會 發明獎勵館에 完製品이 展示되면서 부터이다. 이때 부터 시작된 주문생산은 하나 들쭉날쭉 시작, 요즘은 날개 돋힌듯 팔리고 있다. 이에 噴水스탠드 등 噴水탁자 시리즈 發明에 들어갔다.

최근 선보인 噴水스탠드는 물모양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電動분수대가 설치된 어항겸 조명등. 기존 噴水노즐은 1가지 물모양 구사에 국한되었으나 이 製品은 2가지 모양의 변화를 실현시켰으며 가슴효과도 뛰어나다는 것.

『서울등 대도시는 1區當 1個所, 소도시는 1個所씩의 대리점을 두고, 輸出은 무역회사에 대행토록 하고 있지요.』

羅사장은 요즘 世界第一의 噴水臺 회사 설립의 꿈에 부풀어 있다.

(연락처: 서울 587-1979) <☎>